

정부 제창 불허 '임을 위한 행진곡'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피켓을 든 정의당



유족들 항의받는 박승춘 보훈처장

제3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올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아리랑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제창이 아닌 합창 방식으로 불려졌지만 참석자들은 이렇듯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태극기를 흔들며 목청껏 행진곡을 따라 불렀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했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공식 행사가 시작되기 직전 식장에 입장해 자리에 앉으려 했으나 5·18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곧바로 기념식장을 떠났다.

▲ 36주년 기념식 엄수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기념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등 각계각층의 인사와 추모객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국가보훈처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에 항의, 지난 2년 동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유가족들도 이날 행사장을 찾았다.

반면 박 대통령은 올해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취임 첫해인 지난 2013년에는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첫 해 한 차례 참석한 이후 5년 만이었다. 하지만 이후 기념식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 기념사를 통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국민이 하나가 돼 역량을 결집해나간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진전을 이루는 분수령이 됐다"며 "우리는 고귀한 5·18 정신을 밑거름으로 삼아 사회 각 부문에 민주주의를 꽃 피우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힘써왔다"고 말했다.

또 "민주화를 위해 하나가 됐던 5·18의 정신을 대화합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뤄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은 개식·국기에 대한 경례·애국가 제창(1~4절)·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5·18민주화운동 희생영령에 대한 묵념·헌화 및 분향·경과보고·기념사·기념공연 합창(임을 위한 행진곡)·폐식 순으로 이뤄졌다.

16만6734㎡ 면적의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1980년 당시 희생자와 민주열사 등 오월영령들이 안장돼 있으며, 2002년 7월에 국립묘지로 승격됐다. 민주·정의·인권의 송고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지난 1997년 5월9일 정부기념일로 제정됐다.

▲ 추모객들이 제창
식순에 따라 합창단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자 추모객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태극기를 흔들며 제창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이상호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선인,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와 당선인,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와 당선인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일어서

"나가라"는 유가족 등 항의에 박승춘 보훈처장 자리떠나 5·18 옛 묘역에도 민주열사참배·추모 발길 이어져

불렀다.

앞서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앉아 있기도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도 동참했다.

반면 황교안 국무총리와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건넌 노래를 부르진 않았다.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식순에 포함,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석자의 자율의사를 존중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 박승춘 보훈처장 쫓겨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했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기념식장에서 쫓겨났다.

박 처장은 공식 행사가 시작하기 직전 식장에 입장했으며, 박 처장을 본 5월 유가족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 입장을 저지했다.

항의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자리까지 이동해 자리에 앉으려던 박 처장은 애국가 제창 등 기념식이 시작한 뒤에도 "나가라"는 5월 단체 회원과 유가족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어쩔 수 없이 기념식장을 떠났다.

박 처장은 기념식장을 나서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결정을 청와대가 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결정권은 청와대와 보훈

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것이지 특정 개인이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 아권 인사들 일제히 비판
5·18민주묘지에 모인 아권 인사들은 국가보훈처의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제창 거부 결정에 대해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정부가 옹졸하다"며 "합창만 허용한다는데, 아집에 사로잡힌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란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합창은 되고 제창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기념식장에서 "제창 불가" 입장을 고수한 점을 두고 "국민 통합에 저해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보훈처장의 작태에 대해 모든 국민이 분노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와대에서 보훈처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정부에 한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과 제창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이런 정당한 요구를 끝내 거부한다면 두 야당과 함께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시작으로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강진에서 집거를 이어가고 있는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방식은 답이 뻔하지 않다. 당연히 제창으로"라며 "광주 5·18 기념곡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역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제창은 논란의 주제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그 공연한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 5·18 당시 불렀던 노래는 우리 모두의 노래"라고 강조했다.

▲ 옛 묘역도 추모객 발길
5월 열사와 민주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5·18 옛 묘역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북구 망월동 5·18 옛 묘역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이상호 원내대표·문재인 전 대표 등 지도부와 당선인, 심상정 상임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와 당선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방문, 열사들을 참배했다.

더민주 지도부와 당선인들은 옛 묘역에서 열사들을 참배하고 묘역을 둘러본 뒤 자리를 떠났다.

참배객들은 1980년 5·18 당시 광주의 참사를 취재해 전 세계에 처음으로 알린 독일 언론인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씨의 유골이 안치된 묘지석에 헌화하기도 했다.

/박용주 기자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

201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201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 ✓ 전국유일 홍삼특구!
- ✓ 세계유일 홍삼명인!
- ✓ 국가지정 홍삼연구소의 성분검증!
- ✓ 진안군수 품질인증!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Quality

진안홍삼연구소가 검사, 관리하고 진안군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에만 사용되는 마크입니다.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